



남태희 김신욱 이강인 백승호

남태희김신욱 건재 · 이강인백승호 '쑥쑥' 벤투호, 옵션 더 다양해졌다

스리랑카 · 북한전 통해 다양한 자원들 기대 충족

돌아온 벤투의 남자 남태희의 기술은 건재했고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의 힘과 높이는 확실히 위력적이었다. 그리고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막내형'으로 활약했던 이강인은 A대표팀에서도 비범한 능력을 뽐냈다. 벤투호의 옵션이 더 다양해졌다.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대결과 함께 축구대표팀의 10월 A매치 일정이 마무리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15일 오후 북한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지난 10일 화성에서 열린 스리랑카와의 2차전 승리를 포함, 1승1무로 10월 2연전을 마친 한국은 북한과 함께 나란히 2승1무를 기록했으나 골득실(+10)에서 북한(+3)을 크게 앞서 1위를 유지하게 됐다.

2차예선부터 '골득실'을 운운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스리랑카전 대승은 소독이 됐다.

당시 대표팀은 캡틴 손흥민이 선제골을 포함해 멀티골을 터뜨렸고 벤투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선발로 출격해 김신욱이 무려 4골을 폭발시키며 8-0 압승을 거뒀다. 승리 이상으로 고무적인 것은 다

양한 공격 자원들이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점이다.

스리랑카전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이강인이다. 득점자가 4명(김신욱, 손흥민, 황희찬, 권창훈)이나 있었음에도 이강인의 밝기가 떨어지지 않았다.

국내 팬들 앞에서 첫 선발로 나선 18세 이강인은 미드필드 중앙에서 사방으로 공을 전담하는 중책을 맡았는데,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컨트롤은 정확했고 시야는 넓었으며 거리에 상관없이 그의 왼발을 떠난 공은 동료에게 배달됐다.

벤투가 오래도록 기다렸던 남태희도 테크니션다운 모습을 자랑했다. 남태희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오른쪽 측면이었으나 굳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채 마음껏 기술을 뽐냈다. 스리랑카가 촘촘하게 수비벽을 세웠으나 정교한 컨트롤과 화려한 볼터치로 마음껏 헤집고 다녔다.

모두가 공격에만 집중하던 상황에서 홀로 미드필드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수비 밸런스에 신경을 썼던 백승호도 합격점을 받았다. 원금을 조절하는 움직임과 패스를 선보이며 '차세대 조타수' 가능성을 계속 키웠다. 경험 많은 정우영

이 마냥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김신욱은, 스리랑카 수비수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였다. 당시 김신욱은 머리로 2골, 발로 2골 넣었다. 마냥 머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머리가 확실히 위력적임을 입증했다.

일각에서 '역시 아시아용'이라며 일종의 비아냥을 보냈으나 폼하할 일이 아니다. 아직 2차예선이 많이 남았다. 2차예선을 통과하고 최종예선에 진출한다고 갑자기 유럽 국가들과 겨루는 것도 아니다. 골치 아픈 상대 밀집수비를 깔끔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것은 든든할 일이다.

손흥민과 황희찬 등 유럽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명성에 어울리는 폼을 보여준 것을 포함, 소위 '역대급 라인업'이라는 공격진들이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중계방송이 되지 않아 플레이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전에는 황희찬, 이재성, 나상호 등 또 다른 자원들이 선발출격할 것도 긍정적이다. 스쿼드가 두껍다는 의미다.

평양에서 무득점 무승부에 그치면서 원정 약세를 떨치지 못했다. 이는 아쉬움이 남으나 10월 2연전은 소독이 있었다. 현재 벤투호에 '확실한 선발'은 손흥민 정도다.

뉴스1

PGA투어 신인왕 임성재 "이젠 연습장서 알아봐 주시더라"

이번 시즌 30~35개 대회 출전 예상



임성재(21·CJ대한통운)가 2018-19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상 트로피를 받고 다음 시즌 우승과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목표로 잡았다.

16일 제주도 클럽나인브릿지(파72·7196야드)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타이 보타우 PGA투어 국제부문 사장은 지난 시즌 아시아인 최초로 PGA투어 신인왕에 오른 임성재에게 신인상 트로피인 아널드 파머 트로피를 건넸다.

임성재는 "PGA투어에서 신인상을 받으니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웃었다. 그는 "얼마전에 연습장에 갔는데 저를 알아봐줬다. 골프장에 가도 알아봐주신다"고 말했다.

2번째 PGA투어 시즌에 돌입한 임성재는 올해에도 30~35개 정도의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임성재는 "PGA투어는 꿈의 무대다. 경기를 안 나가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며 "많은 대회에 출전하고 싶고 경기에 많이 나가서 7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 중 유일하게 PGA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기도 했다"며 "PGA투어 회원들은 멋진 활약을 보여준 임성재에게 신인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트로피를 수여했다.

뉴스1

이강인, 골든보이 후보 20인에 데 리히트·펠릭스와 나란히

이탈리아 스포츠 매체 '투토스포츠' 선정

한국 축구의 미래로 꼽히는 이강인(18·발렌시아)이 마타이스 데 리히트(20·유벤투스), 주앙 펠릭스(20·AT 마드리드) 등과 세계 축구계가 주목해야 할 신성 20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탈리아 스포츠 매체 '투토스포츠'는 16일(한국시간) 2019년 골든보이 후보 2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2차 투표를 마치고 80명에서 60명으로 줄인 후보 명단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강인은 최종 후보 20인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데 리히트, 펠릭스, 비

니시우스 주니오르(19·레알 마드리드), 제이든 산초(19·도르트문트), 안수 파티(17·바르셀로나), 마테오 귀엔두지(20·아스널) 등 유럽 명문 팀의 미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후보 중 파티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최종 후보에 들었다.

이강인은 지난 6월 막을 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한국을 결승까

지 이끌며 맹활약했다. 이후 소속팀 발렌시아로 돌아가 출전 시간을 늘리던 이강인은 지난 26일 헤타페와의 스페인 라리가 6라운드에서 라리가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에 데뷔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투토스포츠가 선정한 역대 골든보이 수상자로는 리오넬 메시(2005년)를 비롯해 세스크 파브레가스(2006년), 세르히오 아케로(2007년), 폴 포그바(2013년), 킬리안 음바페(2017년), 데 리히트(2018) 등이 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